

장성군, '여름과일 컬렉션' 개최

복숭아·포도 등 판촉·홍보 진행

다양한 이벤트 소비자 반응 뜨거워

장성군이 지역 여름과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장성군은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농협광주유통센터에서 '엘로우시티 장성 여름과일 컬렉션' 개막식을 열고, 14일까지 3일간 여름과일 판촉행사와 장성 홍보를 진행했다.

개막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 광주농산물유통센터 홍석용 부사장, 농업중앙회 이기진 장성군지부장, 호남농산물물류센터 홍기흥 센터장을 비롯해 농업 관계자와 과일재배 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판촉행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관광객과 여

름유가를 준비하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성의 여름과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장성의 대표적인 여름과일인 수박, 복숭아, 포도, 플럼코트, 오디와 새싹삼의 효능에 대해 소개하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과 수변길과 출렁다리로 걷는 재미를 더한 장성호 등 장성의 관광 핫플레이스도 홍보했다.

장성의 여름과일은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로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며 맛과 식감이 뛰어나다. 특히 공선조식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믿고 구입할 수 있다. 군은 농산물 유통



을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상품화, 공동선별 판촉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포도 1+1 할인판매(50세트 한정), 새싹삼 1+1 할인판매,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게 홍보용 장성 쌀 증정, 장성 관광지 엽서 증정 등의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플라보 상품(복숭아+포도, 복숭아+사과잼 등)을 선보여 큰 관심을 얻었다.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개장

영광군은 가마미해수욕장 개장식을 12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피서철 손님맞이에 나섰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춘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이장석 도의원과 영광군의회 군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을 축하하고 무사고흥 기원했다.

가마미해수욕장은 영광 9경 중 하나로 1km의 드넓은 반달모양의 백사장과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호

남 3대 해수욕장으로 뽑힐 만큼 명성이 높았지만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영광군은 백합 캐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비치발리볼 대회, 동호회 초청 음악공연, 영화상영, 해변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나주시, '직장인 원예교실' 성료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마음을 가꾸는 직장인 원예교실'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매주 목요일 8회 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원예교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일차로 일과 이후, 직장인의 건전한 취미, 여가생활 향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공기정화 식물 심기, 테라리움, 목공예, 꽃바구니 제작 등 심신 안정에 좋은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교육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씨는 "원예교실이 열리는 매주 목요일은 삶의 활력소가 같았다"며, "집에 초목색 식물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심신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원예교실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이후 스트레스 해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교육 심기, 테라리움, 목공예, 꽃바구니 제작 등 심신 안정에 좋은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교육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담양군,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담양군이 지난 11일부터 1박2일간 담양군청소년수련원에서 관내 거주 귀농귀촌인 8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리더십 함양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귀농·귀촌인의 경영마인드 및 리더십,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리더십을 함양하고, 귀농·귀촌인 간의 협업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화합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마인드 함양,

담양군 귀농귀촌의 방향,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귀농인 성공사례 발표와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소통과 융합 리더십교육, 마케팅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고장으로 담양군을 선택한 귀(귀)한 귀농·귀촌인이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로 소통하는 역량강화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 생활공원' 공모사업 선정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화순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만리 생태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한다.

'생활공원 공모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에 지역주민을 위한 녹색 여가 공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 평가보고회 등을 거쳐 화순군을 포함한 7곳이 선정됐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정비사업(사

업비 5억 원)은 목재 데크 등 기존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유희토지에 관목류와 초화류 등을 심을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마치면, 수만리 생태숲 공원 일대를 방문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군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수만

리 생태숲 공원 습지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습지원과 정자 전망대를 설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경관자원과 우수한 접근성으로 매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물축제' 오는 26일 막 올린다

탐진강·우드랜드 일원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제12회 탐진강 물축제가 오는 26일 막을 올린다.

올해 물축제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1주일간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젊음이 물신, 장흥에 흠뻑'란 주제로 물의 도시 장흥의 정체성 확립과 물이 가진 치유, 교육적 요소의 집목에 초점을 맞췄다.

26일 선보일 개막 주제영상은 억불산, 보림사 용소, 수만리, 탐진강 발원지 등을 배경으로 한 물이 많은 고장 '장남진 장흥'을 표현한다.

개막 축하공연은 물 만난 국내 최정

상급 아티스트들이 초대됐다. 비와이, 노라조, 제시 등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된 축하 공연단은 축제 첫날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는 안중근과 물이 만나는 역사 테마 퍼레이드로 연출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이 있는 장흥군의 역사적 의미를 모티브로 물싸움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군민회관 앞에서 '더위로의 독립선언'을 한 거리행렬은 '더위로의 싸움'을 이어가며 물축제장으로 향한다.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 곳곳은 독립군과 일본군의 물싸움이 벌어

지며, 시원한 물줄기와 물폭탄이 쏟아질 예정이다.

지상 최대 물싸움장은 지난해 보대 규모감을 키워 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워터락 스테이지, 아쿠아 테이너, 확장된 가설 수영장 등 공간프레임이 기존에 비해 웅장해지면서 박진감 넘치도록 재구성됐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지상 최대의 물싸움장 옆에 설치되는 워터플라이다.

워터플라이는 일반적인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마지막에 미끄러지듯 날아올라 대형 수조에 다이빙하는 놀이 기구다.

사전접수를 통해 7월 28일에는 두 돌한 상금이 걸린 워터플라이 그랜드 리도 운영한다.



함평군, '찾아가는 노인 결핵 전수검진' 실시

내달 초까지 진행

함평군보건소가 결핵 발생률이 높은 노인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 초까지 '찾아가는 노인 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한다.

12일 보건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팀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X선 장비가 탑재된 이동검진차량을 통해 실시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지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검진은 주로 노인 다중집합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지에서 이뤄지며 현장에서 이동식 흉부 X-Ray 촬영을 하면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실시간 원격 판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판독결과 결핵 유소견자 발견 시 확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완치될 때까지 보건소 등록을 통한 복약 및 추구관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함평=김평촌 기자

